



△ 기림축산 농장 모습. 좌측부터 대상사료 호남지사 신목포특약점 손승용 대표, 기림축산 유춘상 대표, 부인 이옥남씨, 삼보기축약품 윤정배 대표.

취재 : 정재은

2003년 고급육생산농가 우수상 표창

우수한 종돈 생산과 기본에 충실한 사양관리로 A·B 등급 출현율이 높은

전남 함평 기림축산

기림축산(대표 유춘상)은 200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출하두수 2,069두, A·B 등급 출현율 91.5%(A등급 68.1%, B등급 23.5%)로 2003년 고급육생산농가 우수상을 표창하였다.

11월 3일 현재 출하한 것을 살펴보면 78두 출하 중 A등급이 61두, B등급이 14두로 A·B 등급 출현율이 96% 정도에 이른다. 1주일에 1번 월요일에 규칙적으로 출하를 하고 있으며 출하일령은 165일이며, 평균 출하무게 110kg, 등지방두께 20mm를 유지하고 있다. A·B 등급 출현율이 높아 지급률도 71% 정도에 이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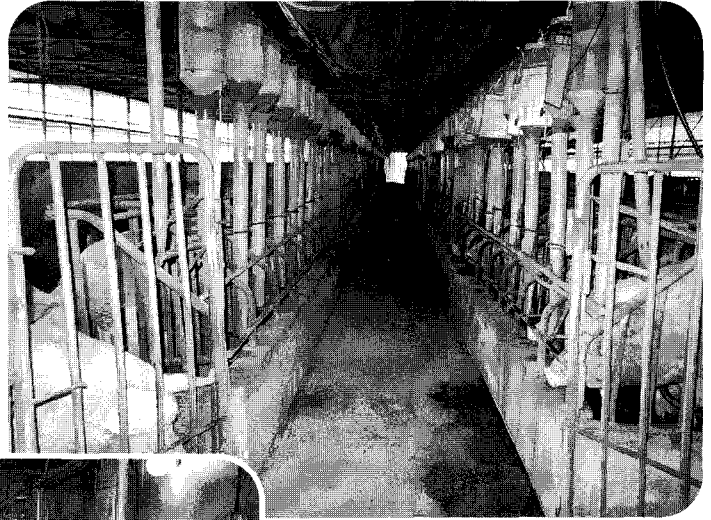
있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

기림축산은 자체적으로 우수한 F1 종돈을 생산함으로써 품종을 균일하게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6산차 이상 모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all-in/all-out 시스템을 적용하며, 주간 관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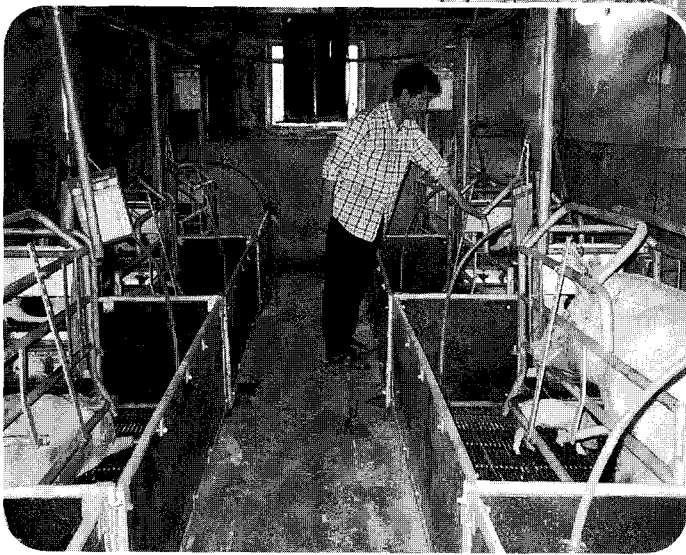
사료·영양관리 및 사양관리를 기본에 맞추어 충실히 하고 있으며, 백신 프로그램을 철저히 적용해 나가고 있다. 가족이 성실히 일하고 있어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정성스럽게 돼지를 기르고 있어 높은 성적이 나타나고 있다.

기림축산의 연혁

기림축산 유춘상 대표(54세)는 함평 출신으로 1988년 12월 27일부터 양돈을 시작하였다. 처음에 돼지 5두를 사육하다가 점차 규모를 늘려나감으로써 1,500두 규모를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1999년 3월 12일에 모돈사·분만사에 화재가 발생



▲ 기림축산 모돈사 내부 모습.



◀ 기림축산 분만사 내부 모습.

자돈사 1동(120평), 육성사·비육사 2동(220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슬러리 돈사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분뇨는 슬러리를 고액분리하여 주로 퇴비화 처리하고 있으며, 일부는 함평군 액비처리장이나 허가 받은 초지에 액비로 공급하고 있다.

하여 181마리 후보돈이 전부 폐사하는 시련을 겪기도 하였지만 좌절하지 않고 재투자하여 2000년부터는 현재의 규모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현재 모돈 180두, 전체사육두수 2,000두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월 출하두수는 300두로 연간 출하두수가 3,500두 정도이다.

기림축산의 돈사구성 및 현황

기림축산의 돈사는 분만사·이유자돈사 1동(120평), 모돈사(임신사 포함) 1동(200평),

높은 A·B 등급출현율로 고급육 생산

200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출하두수 2,069두, A·B 등급 출현율 91.5%(A 등급 68.1%, B 등급 23.5%)로 2003년 고급육생산농가 우수상을 표창하였다.

근래의 성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월 27일에는 2개의 계류장으로 나뉘어져 77두가 출하되었다. 한 곳에는 26두를 출하하였는데



▲ 기림축산 자돈사 내부 모습.



▲ 기림축산 육성사 내부 모습.

A등급 23두, B등급 2두, C등급 1두였으며, 비중은 A등급 88.5%, B등급 7.7%로 A·B등급 출현율이 96.2%에 이르고 있으며, 출하 평균 체중은 110.0kg, 등지방두께 19.2mm이다. 다른 계류장에 51두 출하 중 A등급 37두, B등급 14두로 비중은 A등급 72.5%, B등급 27.5%로 A·B 등급 출현율이 100% 이었다. 출하 평균 체중 108.2kg에 등지방두께는 20.5mm 이었다.

11월 3일의 경우에는 78두 출하 중 A등급 61두, B등급 14두, C등급 2두, D등급 1두로 비중은 A등급 78.2%, B등급 17.9%로 A·B 등급 출현율이 96.1%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출하 평균체중 108.8kg에 등지방두께는 21.1mm 이었다.

유춘상 대표는 “평소에 A·B 등급이 96% 전후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7~9월 돈방이 밀려 있을 때 103~105kg에 출하한 것이 포함되어 1~9월 평균 A·B 등급 출현율은 91.5%로 약간 낮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1주일에 1번 월요일에 규칙적으로 출하를 하고 있으며 출하일령은 165일 전후이며, 평균 출하무게 110kg에 등지방두께 20mm를 유지하고 있다. A·B 등급 출현율이 높아 지급률도 71% 정도이고 장려금도 지급되어 수익을 보장해 나가고 있다.

고급육 생산의 비결

■ 우수한 종돈 생산과 사료·영양관리

기림축산은 자체적으로 우수한 F1 종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유전력과 품종을 균일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 SGI의 우수한 랜드레이스 정액을 구입하여 대요크셔와 교배시켜 F1을 생산하고, 더욱 옹돈을 도입하여 90% 이상을 인공수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절대 6산차 이상의 고령모돈은 사용

하지 않음으로써 성적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유춘상 대표는 "F1 종돈을 직접 생산하는 일이 처음에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투자라 생각하고 우수한 종돈을 생산해 내면 투자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림축산은 영양관리를 잘 하고 있다. 유춘상 대표는 사장은 "가격이 저렴한 사료를 찾아 자주 바꾸는 것이 오히려 손실이 크다."면서 "돈가에 상관없이 일정한 기간, 일정한 사료급여 체계를 가지고 변함 없이 출하하는 것이 수익향상의 지름길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비육돈 후기 사료는 출하직전에 15~20일 정도 급여함으로써 돼지고기의 품질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 체계적이고 기본에 충실한 사양관리

주령별에 따른 계획 아래 사양관리와 환경관리를 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효과적인 관리로 호흡기 등 각종 질병에 잘 걸리지 않게 되어 돼지가 잘 자라게 된다. 또한 all-in/all-out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3, 4번 이상 철저하게 소독을 하는 등 위생·방역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또한 주 단위로 묶은 주간 관리방식으로 철저한 분업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유춘상 대표는 "돈방에 여유공간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좁은 곳에서 밀사를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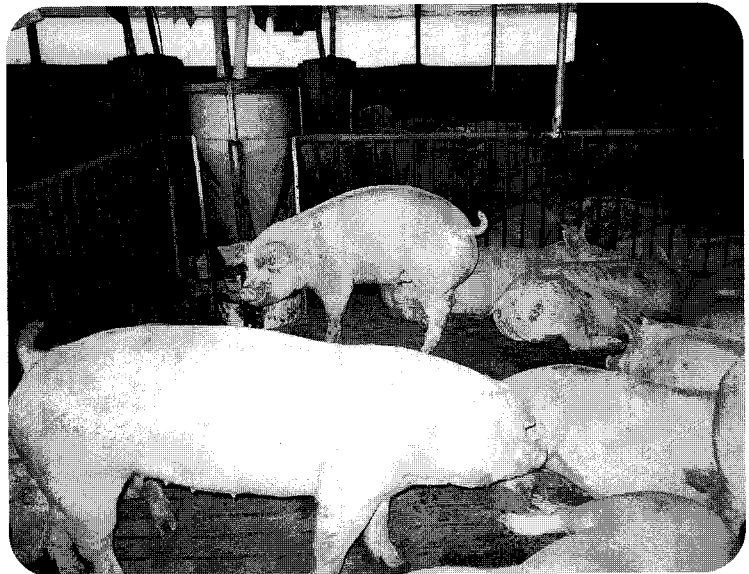
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본에 충실한 사양관리로 기림축산의 생산성적도 뛰어나다. 평균이유두수는 10두가 넘고 PSY도 23.7 수준이며, 사료효율도 좋다. 또한 이유시킨 후 폐사되는 것은 거의 없다.

한편 기림축산은 사료 및 약품 거래회사의 양돈 전문기술인력의 정기방문을 통해 양돈기술 이전 및 사양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어 농장의 성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규칙적인 출하관리

기림축산은 1주일에 1번씩 월요일에 75두 내외를 규칙적으로 출하하고 있다. 165일령에 출하를 하고 있으며, 평균 출하체중은 110kg, 등지방두께는 20mm 정도에 맞추고 있으며, 출하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돼지 가격에 따라 당겨서 출하하거나, 지연출하 하지 않고 일정 체중이 될 때 정기적으로 출하를 하고 있는 것이다.



▲ 기림축산 비육사 내부 모습.

유춘상 대표는 “가격을 좀 더 받으려고 출하를 당기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오히려 돼지의 품질은 낮추고, 농가들 스스로에게도 손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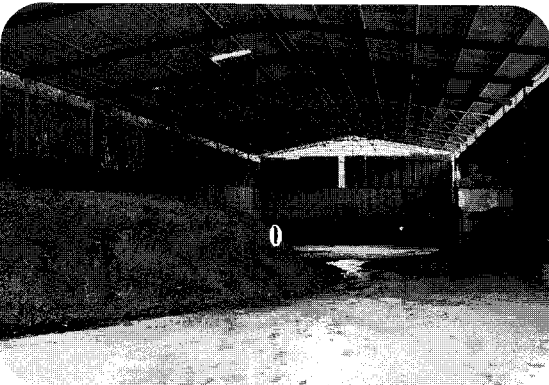
유춘상 대표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세로 정성스럽게 돼지를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부지런히 농장 일을 살피면 내 농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들여다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림축산은 유춘상 대표는 건강이 좋지 않



▲ 기림축산 돈사 내부 통로는 이물질 없이 깨끗하다.



▲ 분뇨는 슬러리를 고액분리하여 주로 퇴비화 처리하고 있다.

아 전체적인 관리만 하고 부인 이옥남씨(53세)에게 일임하였으며, 사위, 농장장과 함께 농장 일을 돌보고 있다.

유춘상 대표는 “남자보다 훨씬 더 꼼꼼한 배려와 정성으로 부인이 돼지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성적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적정사육두수 유지하면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관건

유춘상 대표는 “남들과 별다르게 하는 것은 없다.”며, “돼지를 잘 길러서 출하를 잘 하여 농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소비자들에게 맛있는 돼지고기를 공급하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기림축산은 앞으로 사육규모를 모든 170두 정도로 약간 줄이려고 한다. 다만 평균 출하체중을 110kg, 등지방두께를 22mm에 맞춰 출하함으로써 A·B 등급 출현율을 높여 모든 200두 규모 농장 이상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유춘상 대표는 “내년부터는 월 320~350두 출하가 이루어지는 등 농장이 정상궤도에 이르게 될 것이다.”며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하면서 정성을 들여 기본에 충실한 사양관리를 해나간다면 생산비도 절감되고 A·B 등급 출현율이 높아져 고급육 생산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기림축산은 우수한 종돈 생산과 기본에 충실한 사양관리를 하고 돈방 규모에 맞는 적정두수의 돼지를 사육함으로써 A등급 출현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지급률도 높아져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양돈**